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2017년

국내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2019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한 진 리

2008-2017년
국내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한 진 리

인 준 서

한진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현 경 실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김 명 속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김 미 속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 총 72편을 분석하여 연구의 동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 동향의 분류 기준은 연도별 분포, 장애 유형, 연령별 분포, 연구 방법, 음악활동 영역이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꾸준한 증가나 감소는 없었지만 2015년에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이 같은 구성비를 차지하며 뒤따르고 있다.

둘째, 장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 지적장애, 발달지체, 통합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셋째,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아동(초등학생), 청소년(중학생·고등학생), 유아(미취학)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넷째, 연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순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양적 연구에서는 조사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음악활동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표현 영역, 감상 영역, 생활화 영역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표현 영역에서는 가창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영역에서는 모든 영역, 설문조사, 교과서 분석이 같은 구성비를 차지하였다.

특수교육에 음악치료를 접목시킨 연구는 많은 한편, 특수교육에 음악교육을 접목시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그나마 발표된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는 장애 유형, 연령, 연구 방법, 음악활동 영역 모두 상당히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후속 연구자들은 이를 참고해 균형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특수교육과 관련한 음악교육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2
3. 선행연구	3
II. 이론적 배경	6
1. 특수아동의 정의	6
2. 특수아동의 음악교육	9
3. 통합교육의 이해	14
III. 연구 방법	19
1. 분석 대상	19
2. 분류 기준	20
3. 자료 처리	24
IV. 연구결과	25
1. 연도에 따른 분석	25
2. 장애유형에 따른 분석	26
3. 연령에 따른 분석	28
4.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29
5. 음악활동 영역에 따른 분석	31

V. 결론 및 제언	34
1. 결론	34
2. 제언	36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특수교육 관련법의 장애영역 분류체계 비교	8
<표 2>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논문	20
<표 3> 분류 기준	20
<표 4> 연구 방법별 분류 기준	23
<표 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24
<표 6> 연도에 따른 논문 수	25
<표 7> 장애유형에 따른 논문 수	26
<표 8> 연령에 따른 논문 수	28
<표 9> 연구 방법에 따른 논문 수	30
<표 10> 양적 연구에 따른 논문 수	31
<표 11> 음악활동 영역에 따른 논문 수	32
<표 12> 표현 영역에 따른 논문 수	33
<표 13> 그 외 영역에 따른 논문 수	33

그림 목 차

<그림 1> 연도에 따른 논문 수	26
<그림 2> 장애유형에 따른 논문 수	27
<그림 3> 연령에 따른 논문 수	28
<그림 4> 연구 방법에 따른 논문 수	30
<그림 5> 음악활동 영역에 따른 논문 수	3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찬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자들은 본인들의 주거지 주변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땅값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음악교육 또한 특정한 학생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학생뿐 아니라 장애학생에게도 음악을 통해 그들의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자아실현 등을 이룰 수 있게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

통합교육 실태 조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통합교육에서 예체능 교과는 비교적 수월한 교과로 인식되고 있다.¹⁾ 예체능 교과 수업은 활동 위주로 이루어져 즐기며 표현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별히 음악은 학생의 음악적 수준과 관계없이 예술로서 경험이 가능하다. 장애학생은 음악교육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 능력 또는 적성과 무관하게 기능적, 시각적, 정서적 자극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음악적 경험을 통해 학습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악은 수학적 기술, 방향정위 기술, 운동 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 다양한 학업기술을 구조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악은 상징적 역할로써 개인, 사회, 문화 등의 가치와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비언어적 소통을 가능하게

1) 송윤희(2014). “장애학생의 교육적 통합을 위한 통합학급의 음악 수업 연구”. **예술교육연구**, 12(3), 69-86. 재인용.

한다. 음악으로 개인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까지 나아가 모두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기를 수 있다.²⁾ 또한 음악은 다른 교과목을 연계해 학습하기 좋은 과목이다. 율동 노래나 음악 연주 등을 구구단이나 덧셈, 뺄셈과 같은 문제와 연결시켜 연습함으로 수학적 기술을 기를 수 있다.³⁾

음악교육의 다양한 특성은 장애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일반학생 뿐 아니라 장애학생도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특수교육과 음악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음악치료 또는 특수교육과 음악교육 중 하나의 분야와 접목시킨 자료들을 한정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특수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에 관한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⁴⁾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년간(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 후보로 선정된 학술지를 분석하여, 국내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과 관련한 연구의 동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특수아동 대상 음악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민경훈 외 11명(2017).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54.

3) 김희규 외 7명(2011). **특수교육 음악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58-59.

4) 박소연(2012). “특수교육 음악치료 연구의 국내 동향 분석”, **특수교육연구**, 19(1), 93-115.

1.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의 연도별 논문 수는 어떠한가?
2.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의 장애유형은 어떠한가?
3.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의 연령별 논문 수는 어떠한가?
4.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의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5.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의 음악활동 영역은 어떠한가?

3. 선행연구

논문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 연구가 국내 논문만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국외를 제외한 국내 석사학위 논문 위주로 하였다.

김새롬(2014)⁵⁾은 「국내 청각장애인 대상 음악 적용 연구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을 변인으로 한 24편의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목표와 연구의 전반적인 특성, 음악 중재 방법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청각장애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해놓음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도왔고, 분석 기준을 연구의 전반적 특성, 연구 목표, 음악 중재 방법으로 나누어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논문의 신뢰도를 높였다.

변미정(2014)⁶⁾은 「음악치료 관련 연구 경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음악 치료의 연구경향, 국악 치료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과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

5) 김새롬(2014). 국내 청각장애인 대상 음악 적용 연구 동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6) 변미정(2014). 음악치료 관련 연구 경향 분석.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2012년까지의 S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455편을 분석하여 연구연도, 연구유형, 연구주제, 실험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논문의 주제어에 국악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음악치료 연구 분석에 국악 치료 연구 경향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송미화(2013)⁷⁾는 「특수아동 관련 음악치료 연구의 경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1999-2012년까지 국내 특수아동 관련 음악치료 석·박사 연구와 학술지 논문 324편의 내용을 수집 및 분석하여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논의하였다. 이론적 배경에는 특수아동, 음악치료, 선행연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반면, 치료 부분에서는 음악치료의 원리 및 효과와 같은 기초적인 내용은 없이 특수아동 음악치료 인식만을 설명하고 있다.

신우영(2005)⁸⁾은 「1982-2004년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 경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1982-2004년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음악치료 관련 연구 526편의 내용을 분석하여 음악치료학계 내에서의 연구 결과물들을 정리하고, 이를 음악치료 관련학계의 연구 경향과 비교하였다. 이론적 배경에는 주제와 관련된 기초적 지식 없이 선행 연구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진영(2012)⁹⁾은 「지적장애 대상 관련 국내 음악치료 학위논문 경향분석」이라는 제목으로 1999-2012년까지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발표된 지적장애 대상 음악치료전공 학위 논문 47편을 내용정리 및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분석에 대한 논의는 연구 유형 분석, 음악적 활동 분석, 목적 영역, 측정도구의 4개 범주로 제시함으로써 분석 결과에 신뢰도를 높였다.

최지혜(2015)¹⁰⁾는 「주의력 과잉행동장애(ADHD) 대상자의 음악치료 연구

7) 송미화(2012). 특수아동 관련 음악치료 연구의 경향 분석(1999-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8) 신우영(2005). 1982-2004년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 경향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9) 이진영(2012). 지적장애 대상 관련 국내 음악치료 학위논문 경향분석 (1999-2012). 한세대학교 대학원.
10) 최지혜(201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대상자의 음악치료 연구경향 분석.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ADHD에 관한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선정된 총 57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에 대한 특성, 중재에 관한 특성, 측정에 관한 특성과 같은 음악치료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론적 배경에 연구에서 고려할 점을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음악치료 또는 특수교육과 음악교육 중 하나의 분야와 접목시킨 자료들을 한정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특수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에 관한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과 관련한 연구, 그 중 특별히 석·박사 학위논문을 제외한 전문적인 학술지만을 세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차별화하여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특수아동의 정의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특수아동은 신체적인 특성이나 학습능력이 일반 기준과 달라서 특수교육의 개별화된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 등의 교육을 통해 충분한 혜택이 요구되는 학생을 말한다.¹¹⁾

특수아동의 정의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Kirk와 Gallagher(1979)는 “특수아동이란 지적 특성, 감각 능력, 신경 근육이나 신체적인 특성, 사회 혹은 정서적 행동, 의사소통 능력, 복합적인 장애들에서 평균이나 전형성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Kauffman과 Hallahan(2005)은 “특수학습자란 타고난 인간 잠재 능력을 충분히 실현하려면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말하고 있다.¹²⁾ 특수아동 또는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이란 “학습적 요구나 특성이 대부분의 아동들과는 현저히 달라서 그들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수의 수정이나 특별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나 영재성을 지닌 아동”을 말한다.¹³⁾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6)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11개의 영역으로 정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육 요구 아동을 학교에서

11) 임경옥 외 2명(2017). 특수교육학개론. 서울:학지사. 18.

12) 상계서 18. 재인용.

13) 정대영(2017). 특수교육학. 서울: 창지사. 18.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교수 및 조직의 수정을 요구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부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요구하는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 정의에 따르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아동일 경우에는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특수아동이라고 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결론적으로 특수아동은 일반적으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수아동은 일반아동과는 다른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애아동 뿐 아니라 영재아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10개의 범주에 포함된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특수아동의 ‘특수’는 ‘장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나. 장애유형 및 선정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의 유형과 선정기준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각각 명시되어 있어 장애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으로,¹⁶⁾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11개 영역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규정하고 있

14) 임경옥 외 2명(2017). 특수교육학개론. 서울:학지사. 19.

15) 김동일 외 3명(2016). 특수교육학개론: 장애·영재아동의 이해. 서울:학지사. 16.

16) 교육부(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5367호, 일부개정.

다.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게 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8)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IA)」의 장애 유형 및 분류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19)

<표 1> 특수교육 관련법의 장애영역 분류체계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6)	장애인복지법 (2007)	미국 장애인교육법 (IDEA, 2004)
시각장애	시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각장애	농(deafness) 농-맹
지적장애	지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orthopedic impairment)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정서·행동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자폐성장애	자폐(autism)

17) 교육부(20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18) 권순우 외 3명(2017). 예비(특수)교사를 위한 알기 쉬운 통합교육의 실천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창지사. 18.

19) 상계서. 20. 재인용.

의사소통장애	언어장애	말/언어장애
학습장애		특정 학습장애
건강장애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기타 건강장애
발달지체	-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중복장애 (multiple disabilities)
11개 영역	15개 영역	12개 영역

2. 특수아동의 음악교육

가. 특수아동의 음악교육의 의의

음악교육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특수아동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신체표현을 통해 근육조절을 도와주는 등 특수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여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구 근대 특수교육의 성립에 못지않게 장애인을 위한 음악교육을 시작하였다. 구한말 개화기 때에는 서구 문명을 수용하는 과정 중 선교사들에 의하여 서양음악이 도입되었고 본격적인 특수교육의 시작과 함께 음악교육에도 변화가 왔다. 1955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특수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아동의 음악교육은 전형적인 기존 교육방법과 인식에서 벗어나 장애의 정도와 발달단계, 음악

적 능력, 다양한 욕구 등에 맞는 성취학습을 지향하며 발전하게 되었다.²⁰⁾

음악은 특수아동에게 미적 경험과 감정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수학교 또는 통합학급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수아동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활동으로 인지, 운동 기술, 정서 등도 통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악교육은 특수아동에게 효과적이다. 음악활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소요 시간과 성취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음악교육을 통해 특수아동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수아동은 음악활동을 통해 그들의 교육 목표를 성취할 필요가 있다.²¹⁾

나. 특수아동의 음악교육의 목적

특수아동의 음악교육의 목적으로는 의사소통 기술 향상, 학업 기술 향상, 운동 기술 향상, 정서 기술 향상, 조직화 기술 향상, 사회성 기술 향상 등이 있다.²²⁾

의사소통 기술이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도록 타인과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진 특수아동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하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입 모양 움직임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은 매력적인 소리로 상대방을 자극함으로써 눈 마주침을 증가시키고 격려할 수 있다. 또한 언어표현에 어려움을 가졌더라도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몸짓으로 신호하는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20) 김희규 외 7명(2011). **특수교육 음악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71-72.

21) 장혜성 외 3명(2007). **장애아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1; 강민채(2015). “자폐아동을 위한 음악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발달장애연구**, 19(4), 71-90. 요약정리함.

22) 국립국어원, **우리말샘**(2018).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학업 기술이란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히는 기술이다. 특수아동은 합주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연주 차례를 알고 타인의 연주를 기다림으로 차례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음악 교과는 다른 교과와 비교적 연계하기 쉽기 때문에 특수아동은 음악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운동 기술이란 동작을 반복하고 숙달하여 학습하는 기술이다. 모든 아동에게 신체적인 발달은 대단히 중요하다. 음악은 청각적 자극에 움직임 등으로 반응하게 만듦으로 대·소근육의 발달을 도와준다. 예를 들면, 음악에 맞춰 앉고 일어서거나 걷고 뛰는 등의 몸동작을 통해 대근육의 기능이 향상하고, 캐스터네츠, 탬버린 등의 악기 연주를 할 때 손가락으로 쥐고 펴고 때리는 등 섬세한 움직임을 통해 소근육 사용이 증가한다.

정서 기술이란 감성을 표현하는 기술이다. 신나고 친근한 음악은 특수아동에게는 감상과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모둠 활동을 할 때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반아동이 즐거운 마음으로 특수아동을 도울 수 있게 한다. 특수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점에서 음악은 정서적인 영역에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조직화 기술이란 사물이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음악교육은 음악실로 이동하는 것,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참여하는 것, 음악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 등 구조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 조직화기술을 향상시키게 한다. 또한, 조직화는 환경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악기를 동일한 장소에서 가져오고 놓는 것, 악기를 준비하고 다시 정리하는 것, 모둠 수업 활동 때 다른 모둠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 등 환경에 대한 조직화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성 기술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거나 적합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음악교육은 합창, 합주, 토론, 토의 등의 단체 수업을 통해 서로가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해 줌으로 사회성기술을 습득하게 만든다. 특수아동이 일반아동을 모방하고 일반아동은 특수아동의 모델이 되면서 음악기술의 개별적 발달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수아동을 위한 음악교육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도방법이 될 수 있다.²³⁾

다. 특수아동을 위한 다양한 음악활동

특수아동을 위한 음악활동의 종류로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음악 만들기, 신체표현하기 등이 있다.

노래 부르는 것은 음악활동 중 가장 기초적이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특수아동에게 효과적이다. 노래는 가사뿐만 아니라 선율, 박자, 빠르기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수아동이 노래 부르기에 참여할 때 교사 또는 일반아동을 모방하면서 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 발성, 발화에도 도움이 된다. 노래 부르는 것은 어떤 곡을 선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반아동 위주로만 제재곡을 고르게 되면 특수아동과 함께 노래 부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단어, 반복적인 구조, 쉬운 멜로디, 장애학생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래 부르기를 지도할 때에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각자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한 음절부터 한 단어 그 다음 한 구절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특수아동은 또래와 함께 친근한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

23) 장혜성 외 3명(2007). **장애아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2-31.

듬 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킴으로 소속감과 협동심을 가질 수 있다.

악기 연주하기는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 소리 내는 것으로 특수아동이 좋아하는 음악활동 중 하나이다. 악기 연주하기는 대·소근육의 발달과 의사소통기술 발달에 도움이 되며 자기표현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악기를 고르고 연주하게 함으로 성취감을 가지게 한다. 특수아동에게 악기를 지도할 때에는 특수아동의 인지, 신체, 사회적 능력을 고려하여 악기를 개조하거나 지도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야한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적절한 악기를 선택하는 것인데 교사, 부모, 치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장애를 고려하여 선호하는 악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다음으로는 특수아동이 악보를 이해하고 시각적인 정보처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읽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을 함께 사용해 접근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특수아동이 음악적 과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각 특수아동을 위한 악기 연주의 목적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얼마나 발전했는지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특수아동의 악기 지도는 나이와 장애의 특성에 맞게 악기와 악보를 개조 및 수정하고 지도방법의 개발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해야한다. 신체적, 음악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 감상하기는 특수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에게 선호도가 가장 낮은 활동으로 수업시간에 음악 감상 활동이 자주 실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만히 앉아 음악을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감상은 활동량이 많고 집중력이 짧은 특수아동과 일반아동 모두에게 쉽지 않은 활동이다. 따라서 음악을 들으면서 몸으로 반응하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소리 즉, 자신이 부른 노래나 연주한 악기 소리를 녹음하여 다시 들어보는 새로움을 발견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능동적인 감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지기술 향상을 위해서 대조되는 음악을 들어보게 하는 것도 좋다.

음악 만들기는 가사 쓰거나 노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 활동은 언어 및 인지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 만들기는 자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키게 만든다. 또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수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함으로 자기결정권을 지도할 수 있음으로 꼭 실시해야 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신체표현하기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모두 노래 부르기과 같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음악활동 중 하나이다. 음악은 신체와 서로 상호적인 자극을 가질 수 있다. 음악을 신체표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극으로, 신체표현을 음악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수아동이 음악의 음정, 리듬, 빠르기 등의 변화에 따라 신체표현을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으며 또한 시작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3. 통합교육의 이해

가. 통합교육의 정의 및 목적

통합교육이란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이 배우고 생활함으로써 서로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상호작용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환경을 의미한다.²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명

24) 김동일 외 3명(2016). 특수교육학개론: 장애·영재아동의 이해. 서울:학지사. 45.

시하고 있다.²⁵⁾ 이와 같이 통합교육은 인간에 대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취한 공평하고 윤리적인 조치이다.

통합교육의 목적은 특수아동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용되고,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아동 기준의 교육을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일반아동뿐 아니라 특수아동에게도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수월성을 보장하고 개인이 지닌 학습 능력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 및 수용함으로써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여 집단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²⁶⁾

나. 통합교육의 분류

통합교육의 역사와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먼저 물리적 통합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교육적, 사회적 등의 통합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 통합교육은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단계가 각기 다르나 공통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물리적 통합, 교육적 통합, 사회적 통합의 세단계로 나눌 수 있다.²⁸⁾

물리적 통합은 시간적 또는 장소적 통합으로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이 일정 시간 동안 함께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나 동일한 장소에 배치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물리적 통합을 한 후에도 두

25) 교육부(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5367호, 일부개정.

26) 임경옥 외 2명(2017). 특수교육학개론. 서울:학지사. 47; 이순자(2016).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과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9(2), 75-127. 요약정리함.

27) 김동일 외 3명(2016). 특수교육학개론: 장애·영재아동의 이해. 서울:학지사. 49.

28) 상계서. pp.49-51; 임경옥 외 2명(2017). 특수교육학개론. 서울:학지사. 57-58. 요약정리함.

집단 간에 실질적인 접촉이 없거나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일어날 수도 있다.

교육적 통합은 특수아동이 일반학급의 활동에 참여하여 모든 교육적 활동을 일반아동이 받는 교육의 내용과 일관된 수행을 똑같이 또는 유사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특수아동이 일반학급에서 교육받을 때 교육적 효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나 교육내용 등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특수아동의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일반학급의 진도에 맞춰 확인하고 특수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통합은 특수아동이 같은 학급의 교사와 또래로부터 학급의 구성원으로 수용되어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특수아동이 같은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나 활동의 목적 등을 공유하고 다른 아동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도 대부분의 특수아동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다가 통합교육을 받게 되어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특수아동에게 규칙을 잘 가르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질차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아동에게 의사소통 및 사회적 기술을 지도하고, 일반아동에게 장애의 이해도를 높여 서로 간의 교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통합교육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특수아동이 또래에게 수용되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통합학급 교사의 역량,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수방법, 함께 배치된 아동의 이해 수준, 특수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물리적 통합, 교육적 통합, 사회적 통합의 모든 단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²⁹⁾

29) 손영화(2012). “통합교육 문제점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2), 91-113.

다. 통합교육의 당위성

모두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면 특수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도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수아동도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일반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통합교육을 받음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과 일상 능력 등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³⁰⁾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적인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인 측면으로는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에 처음 최소제한환경이 명시되면서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법적인 근거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최소제한환경이란 장애학생을 가능한 한 장애가 없는 가정, 또래, 지역사회로부터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개념이다.³¹⁾ 즉, 장애학생을 교육할 때 교육 서비스 전달체제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하며 장애학생들이 또래와 최대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8)³²⁾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 교육법」(2017)³³⁾ 제5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7)³⁴⁾ 등에서 법적

30) 김동일 외 3명(2016). 특수교육학개론: 장애·영재아동의 이해. 서울:학지사. 53.

31) 김동일 외 3명(2016). 특수교육학개론: 장애·영재아동의 이해. 서울:학지사. 46; 임경옥 외 2명(2017). 특수교육학개론. 서울:학지사. 51. 요약정리함.

32) 교육부(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5367호, 일부개정.

33) 교육부(2017).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603호, 일부개정.

34)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2호, 일부개정.

으로 제시하고 있다.³⁵⁾

특수아동에 미치는 교육적 측면으로는 통합교육 상황에서 교육과정과 교수적 방법 등을 수정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였을 때 학업 수행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을 통해 특수아동은 일반아동의 행동을 관찰 및 모방함으로써 인지 및 언어 발달이 촉진될 수 있고, 그 외에도 기본 발달, 학습 동기 및 학습 발달, 적응기술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아동에게도 사회적인 태도에서나 또래교수를 통한 학습 능력의 향상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통합교육을 받은 특수아동은 분리교육에서 받은 교육성과와 같거나 더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아동도 통합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아동에 비해 학업성취가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아동에 미치는 사회적 측면으로는 통합교육이 사회 발달을 촉진시키고 자아개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특수아동은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으며, 분리교육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기존의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아동은 장애아동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생각해볼 수 있고 학교라는 지역사회가 특수아동도 수용하고 포함해야한다는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통합교육은 일반아동과 특수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같은 또래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 장애를 비롯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한다.³⁶⁾

35) 임경옥 외 2명(2017). **특수교육학개론**. 서울:학지사. 55.

36) 김동일 외 3명(2016). **특수교육학개론: 장애·영재아동의 이해**. 서울:학지사. 53-57; 임경옥 외 2명(2017). **특수교육학개론**. 서울:학지사. 55-57; 김성애(2010). “포스트모더니즘적 교육 및 인성학적 차원에서 본 한국 통합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 **유아특수교육연구**, 10(2), 23-49. 요약정리함.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을 위해 논문 전문 검색 사이트인 ‘국회 전자도서관’과 ‘국회도서관’, ‘RIS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에 사용된 주제어는 ‘장애’, ‘특수’, ‘음악’ 등이고,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및 등재후보가 된 국내 학술지만을 검토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논문 총 72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논문 수집 시 논문의 제목, 초록, 주제어 등의 검색만으로 자료의 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는 음악치료가 아닌 음악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음악치료 관련 논문과 차별화하기 위해 음악치료학회지에서 발행된 논문은 제외하였으며, 논문 제목에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간 논문 역시 제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분석하기 때문에 성인 및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도 제외하였으며, 음악과 특수교육 외 다른 교과와 연계된 논문도 제외하였다. 제외한 논문을 정리한 것은 <표 2>와 같다.

이와 같이 분석 대상에 기준을 가지고 검토 후 수정, 보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총 72편의 학술지 논문은 연도별로, 장애유형별로, 연령별로, 연구방법별로, 음악활동 영역별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상 논문의 목록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2>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논문

제외한 이유	사례	제외한 갯수
다른 교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줄넘기 운동이 지적장애 고등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체육 과목과 연계됨. 노래 및 음식재료판 제작활동을 통한 생활자립 훈련이 그룹홈 거주 지적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 가정 교과와 연계됨. 	10편
음악 치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의 매개로서의 음악점자의 활용을 위한 다양식성의 역할 - 음악치료연구 학술지에 실림.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 및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음악과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비교연구 - 논문 제목에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감. 	24편
대상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에 대한 음악교육법의 적용 일례 - 환자(전 연령)를 대상으로 함. 연하장애 위험 여성노인의 노래중재 적용 효과 - 노인을 대상으로 함. 	25편

2. 분류 기준

선정된 자료들은 연도, 장애유형, 연령, 연구 방법, 음악활동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류 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분류 기준

영역	내용
연도	2008~2017년 국내 학술지 논문
장애 유형	시각 장애, 청각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지체, 뇌병변 장애, 통합, 기타

연령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연구 방법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음악활동 영역	표현, 감상, 생활화, 기타

가. 연도

2008년은 「특수교육진흥법」(2008)이 폐지되고 신설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³⁷⁾이 대체한 해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발표된 논문을 연도별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다.

나. 장애유형

장애유형에 따른 분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018)에 명시된 특수교육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뇌병변장애인, 기타로 분류하였다.³⁸⁾ 동일한 연구에 두 개 이상의 대상이 포함 된 경우도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유형이 명시하지 않은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현장에서 통합 교육이 큰 쟁점으로 대두되기에 통합은 별도로 분류하였다.

다. 연령

37) 교육부(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8852호.

38) 교육부(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5367호, 일부개정.

연령에 따른 분류는 유아(미취학), 아동(초등학생), 청소년(중학생·고등학생)으로 분류하였다. 동일한 연구에 두 개 이상의 대상이 포함 된 경우도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모, 교사 등의 대상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라. 연구 방법

특수아동과 관련된 논문 분석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분석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박소연(2012)³⁹⁾은 특수교육 음악치료 연구의 국내 동향 분석에서 연구방법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질적 병행 연구, 문헌 연구로 범주화하였다. 양적 연구는 다시 실험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로 범주화하였으며, 실험 연구는 단일 대상 연구와 집단 실험 연구로, 기술 연구는 사례 연구, 상관 연구, 비교 연구, 조사 연구, 평가 연구로 분석하였다.

김건희·김은혜(2015)⁴⁰⁾는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 관련 연구동향 분석에서 연구 방법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로 범주화하였다. 양적 연구는 다시 실험 연구와 기술 연구로 나누었으며 기술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 상관 연구, 비교 연구, 내용 분석,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분하였다. 실험 연구는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 수, 연구 대상자 연령, 연구 기간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조사연구는 연구 내용,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 수로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박소연(2012)과 김건희·김은혜(2015)의 논문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여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로

39) 박소연(2012). “특수교육 음악치료 연구의 국내 동향 분석”, *특수교육연구*, 19(1), 93-115.

40) 김건희·김은혜(2015).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 관련 연구동향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21-50.

범주화하였으며, 양적 연구는 다시 실험 연구와 조사 연구, 내용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방법별 분류 기준은 <표 4>⁴¹⁾와 같다.

<표 4> 연구 방법별 분류 기준

연구 방법	세부 연구 방법	세부 내용
양적 연구	실험 연구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루어지는 연구
	조사 연구	특별한 주제나 현안 문제를 파악하여 사실대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연구 (상관 연구, 사례 연구, 비교 연구 등의 관련성 연구 포함)
	프로그램 개발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여 특수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
질적 연구	질적 연구	소집단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험이 발생하는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문헌 연구	문헌 연구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물, 이미 발표된 통계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는 연구

라. 음악활동 영역

「2009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⁴²⁾에서는 음악활동 영역을 지각활동, 표현활동, 감상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기준으로 표현 영역, 감상 영역, 생활화 영역, 그 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표현 영역은 기능에 따라 가창(노래 부르기), 기악(악기로 연주하

41) 최은식 외 9명(2014). **음악교육 연구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16, 32, 113.

42)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고시 제2010-44호 [별책 1].

기), 신체표현(신체표현하기), 창작(만들기)으로 세분화하였다. 그 외 영역은 모든 음악활동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영역과 설문조사, 교과서 분석, 동향 분석으로 세분화하였다. 동일한 연구에 두 개 이상의 대상이 포함 된 경우는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핵심 개념과 기능은 <표 3>과 같다.⁴³⁾

<표 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영역	핵심 개념	기능
1.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의 상호작용 • 음악의 표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부르기 • 악기로 연주하기 • 신체표현하기 • 만들기 • 표현하기
2.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요소와 개념 • 음악의 종류 • 음악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별하기 • 표현하기 • 설명하기
3.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의 활용 • 음악을 즐기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기 • 평가하기 • 조사하기 • 발표하기

3. 자료 처리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도표화 하거나 수치화하여 처리하였다.

43) 교육부(201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IV. 연구결과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여 연도별연구 분포, 장애유형, 연령, 연구방법, 음악활동 영역에 따라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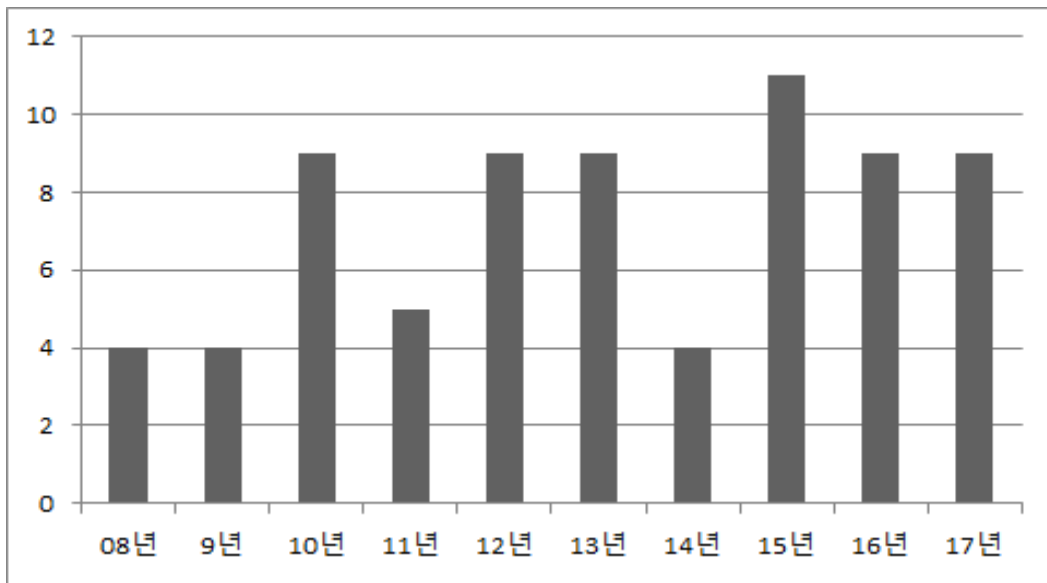
1. 연도에 따른 분석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72편(100%)의 국내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도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6>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5년은 2014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인단 의뢰서,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의 여러 행정서식이 재정비된 해이다.⁴⁴⁾ 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은 모두 같은 구성비로 발표되었다. 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은 모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된 해이다. 전체 연구 중 2017년의 연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하여 현재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연도에 따른 논문 수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논문 수	4	4	9	5	9	9	4	11	9	8	72
백분율	5.5	5.5	12.5	6.9	12.5	12.5	5.5	15.2	12.5	11.1	100

44) 보건복지부(2014).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54호, 타법개정.



<그림 1> 연도에 따른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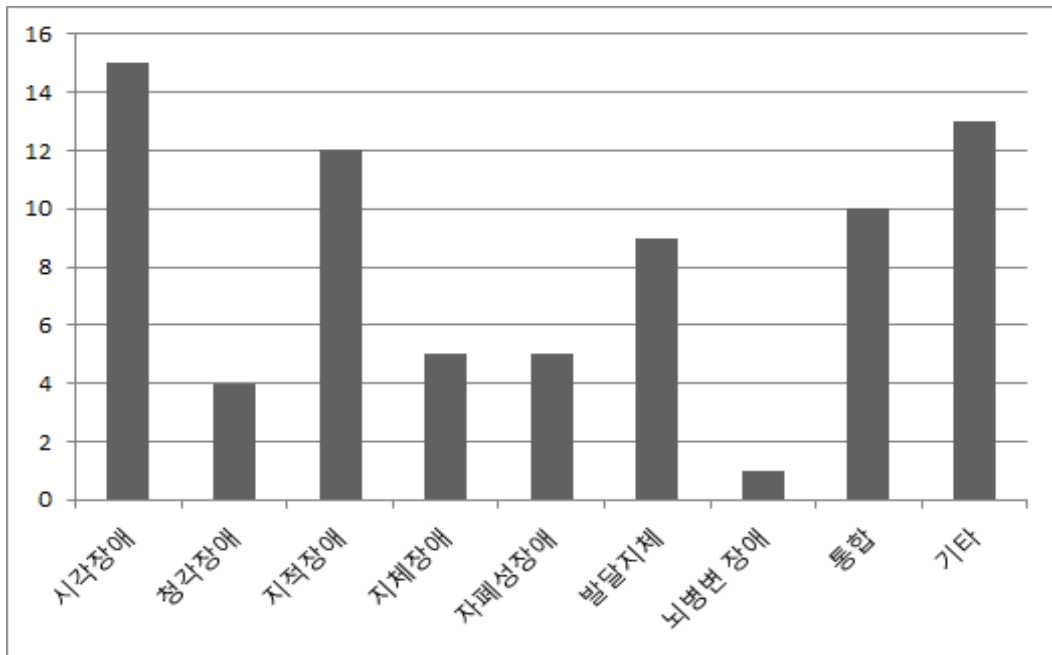
2. 장애유형에 따른 분석

장애유형에 따른 분석은 국내 특수교육관련법에 통합 유형까지 포함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뇌병변장애인, 통합,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도별 장애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7>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 15편(20.2%), 지적장애 12편(16.2%), 발달지체 9편(12.1%)순으로 나타났고, 통합 영역을 포함할 때는 시각장애 15편(20.2%), 지적장애 12편(16.2%), 통합 10편(13.5%)으로 통합이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은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장애유형이 두 가지 유형(발달지체장애와 통합)을 포함하는 논문(2편)도 있었으며, 모든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유형을 명시하지 않은 논

<표 7> 장애유형에 따른 논문 수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 지체	뇌병변 장애	통합	기타	계
논문 수	15	4	12	5	5	9	1	10	13	74
백분율	20.2	5.4	16.2	6.7	6.7	12.1	1.3	13.5	17.5	100



<그림 2> 장애유형에 따른 논문 수

문도 있었다. 전자는 중복하여 분류하였으며, 후자는 기타 13편(17.5%)으로 분류하였다. 음악교육은 특정 장애유형뿐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능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⁴⁵⁾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어 특정 분야의 지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의

45) 승윤희(2013). "장애학생의 교육적 통합을 위한 통합 학급에서의 보편적 음악 학습 설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156-172.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⁴⁶⁾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통합은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연령에 따른 분석

연령에 따른 분석은 유아(미취학), 아동(초등학생), 청소년(중학생·고등학생),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도별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8>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이 35편(42.6%)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청소년 22편(26.8%)과 유아 13편(15.8%)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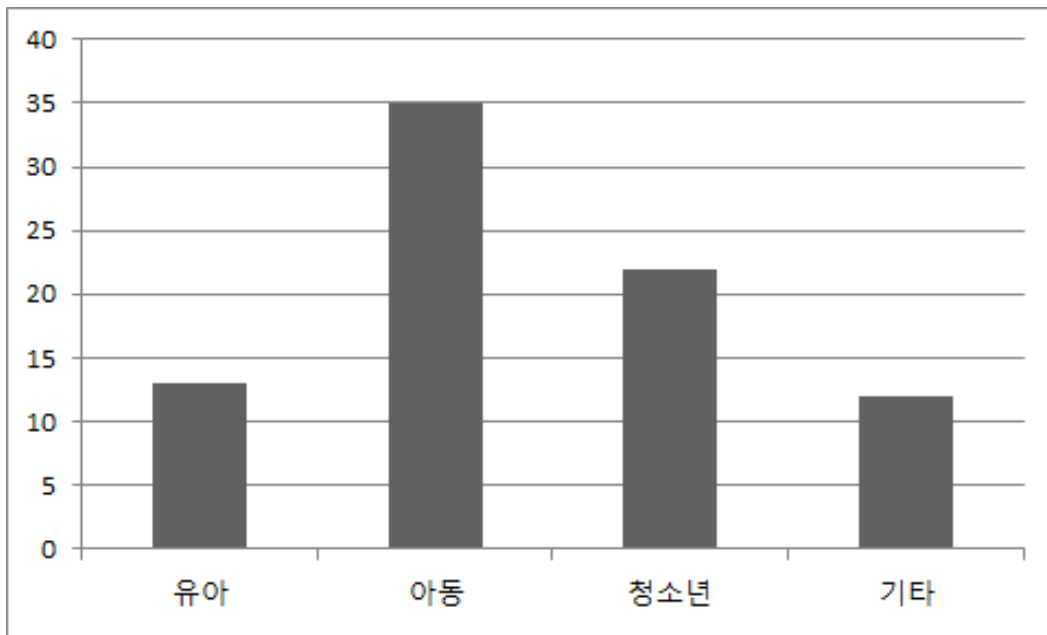
동일한 연구에 두 개 이상의 대상이 포함 된 경우도 별도로 분류하였으며, 특수아동을 교육하는 교사나 특수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타 12편(14%)으로 분류하였다. 음악은 교육의 시작 시기가 이룰수록, 교육기간이 길수록 음악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조기음악교육이 중요하다.⁴⁷⁾ 이를 고려한다면 유아 영역의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표 8> 연령에 따른 논문 수

	유아(미취학)	아동(초등학생)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계
논문 수	13	35	22	12	82
백분율	15.8	42.6	26.8	14.6	100

46) 김지영 외 5명(2015).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5(3), 403-417. 재인용.

47) 최용선(2014). “조기 아동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지, 600-602.



<그림 3> 연령에 따른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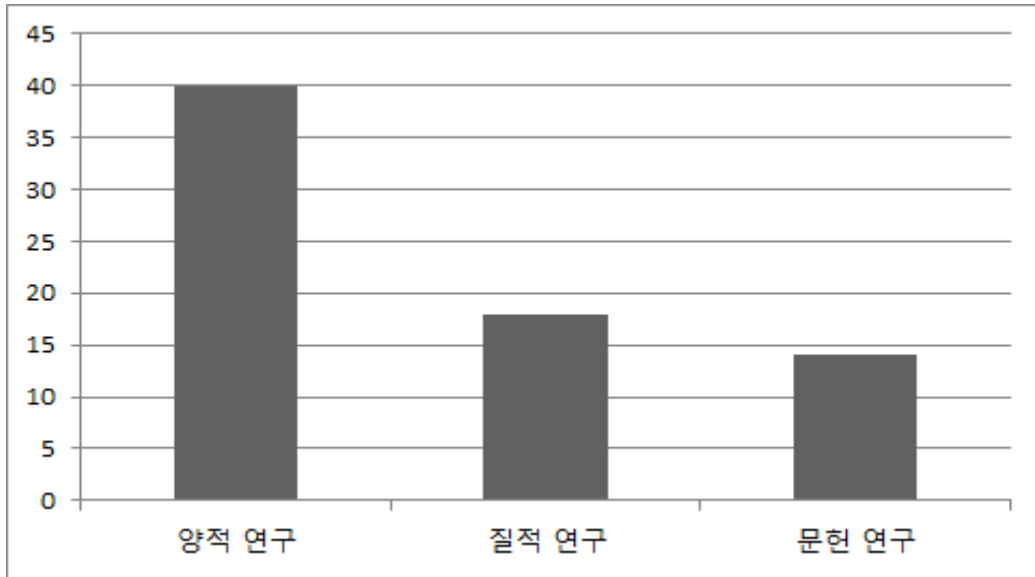
4.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은 먼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로 나누고, 양적 연구는 다시 실험 연구와 조사 연구, 내용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적 연구가 40편(55.5%)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양적 연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질적 연구로 18편(25%)이 발표되었으며, 대부분 음악활동 경험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는 14편(19.4%)으로 가장 적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과 동향 분석 등의 연구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양적 연구가 편중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수아동이 개별화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인 만

크 개별 특성에 대해 더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문헌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표 9> 연구 방법에 따른 논문 수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계
논문 수	40	18	14	72
백분율	55.5	25	19.4	100



<그림 4> 연구 방법에 따른 논문 수

양적 연구는 연구 방법에 따라 실험 연구, 조사 연구, 내용 분석, 프로그램 개발로 분류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양적 연구에 따른 논문 수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연구가 21편(52.5)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조사 연구는 2010년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의 실태, 인식, 흥미도 등 다양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 연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실험 연구로 15편(37.5%)

이 발표되었다. 실험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적게는 6명,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인원수이며, 대부분이 최소 학급 이상 최대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집단 실험 연구로 이루어졌다. 대규모 집단 실험 연구는 소수의 특수아동과 다수의 일반아동으로 연구대상이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실험 연구가 가능한 특수아동의 수가 적으며 다수의 특수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은 4편(10%)으로 가장 적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프로그램 개발은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프로그램 또는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적 연구에서 조사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에 치우쳐있으므로 다방면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표 10> 양적 연구에 따른 논문 수

	실험 연구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계
논문 수	15	21	4	40
백분율	37.5	52.5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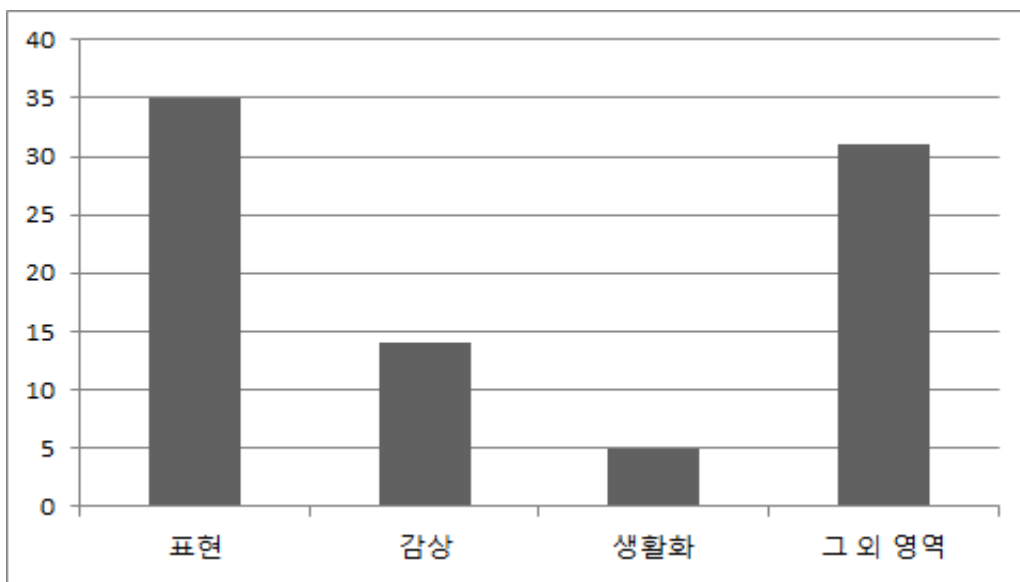
5. 음악활동 영역에 따른 분석

음악활동 영역에 따른 분석은 연구 방법에 따라 표현 영역, 감상 영역, 생활화 영역, 그 외 영역으로 분류였고, 동일한 연구에 두 개 이상의 대상이 포함 된 경우도 별도로 살펴보았다. 음악활동 영역에 따른 논문 수는 <표 11>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 영역이 34편(40.6%)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감상 영역 14편(16.2%)과 생활화 영역 5편(5.8%)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현 영역은 40%의 비율을 차지한 한편 감상 영

역과 생활화 영역은 두 영역을 합쳐도 약 20%의 비율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⁸⁾ 이를 고려한다면 표현 영역뿐 아니라 감상 영역과 생활화 영역도 확장되어 모든 음악활동 영역이 고르게 분포될 필요가 있다.

<표 11> 음악활동 영역에 따른 논문 수

	표현 영역	감상 영역	생활화 영역	그 외 영역	계
논문 수	35	14	5	32	86
백분율	40.6	16.2	5.8	37.2	100



<그림 5> 음악활동 영역에 따른 논문 수

표현 영역은 기능에 따라 가창(노래 부르기), 기악(악기로 연주하기), 신체 표현(신체표현하기), 창작(만들기)으로 세분화하였다. 표현 영역에 따른 논문 수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창이 22편(37.9%)으로 가장 많은 논문

48) 교육부(201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이 발표되었다. 기악 20편 (34.4%), 신체표현 12편(20.6%), 창작 4편(6.8%)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가창은 음악활동 중 가장 기초적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특수아동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한 한편 창작은 언어 및 인지 능력 등이 요구되어 수업시간에 쉽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⁴⁹⁾ 가장 적은 구성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작은 자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창작 영역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표 12> 표현 영역에 따른 논문 수

	가창	기악	신체표현	창작	계
논문 수	22	20	12	4	58
백분율	37.9	34.4	20.6	6.8	100

그 외 영역은 31편(36.4%)으로 모든 영역, 설문조사, 교과서 분석, 동향 분석으로 세분화하였다. 그 외 영역에 따른 논문 수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영역 9편(28.1%), 설문조사 9편(28.1%), 교과서 분석 9편(28.1%)이 같은 구성비로 발표되었다. 동향 분석은 5편(15.6%)으로 구성비가 제일 낮게 나타났다. 모든 영역은 표현, 감상, 생활화 등 모든 음악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종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조사와 교과서 분석, 동향 분석은 특수 아동의 음악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

<표 13> 그 외 영역에 따른 논문 수

	모든 영역	설문조사	교과서 분석	동향 분석	계
논문 수	9	9	9	5	32
백분율	28.1	28.1	28.1	15.6	100

49) 장혜성 외 3명(2007). 장애아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2, 3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 총 72편을 분석하여 연구의 동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연구문헌을 연도별 분포, 장애유형, 연령별 분포, 연구 방법, 음악활동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동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문제에 따라 얻은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들의 연도에 따른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72편의 학술지가 발표되었고 2015년에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이 같은 구성비를 차지하며 뒤따르고 있다. 2015년은 2014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인진단 의뢰서,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의 여러 행정서식이 재정비된 해이며 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은 모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된 해이다. 이를 감안하면 장애인 관련법이 개정된 해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들은 시각장애, 지적장애, 발달지체, 통합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전체의 62%로 과반수를 차지한 한편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은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음악이 특수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장애영역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음악은 상징적 역할로써 개인, 사회, 문

화 등의 가치와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비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게 하며 다른 교과목을 연계해 학습하기 좋은 과목으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연구가 시급하다.

셋째,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들의 연구 대상 연령은 아동(초등학생), 청소년(중학생·고등학생), 유아(미취학)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유아 영역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음악은 교육의 시작 시기가 이룰수록, 교육기간이 길수록 음악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으로 조기음악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유아 영역의 연구가 확장되어야 한다.

넷째,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양적연구는 전체의 55.5%로 편중된 모습을 나타냈다. 특수아동이 개별화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인 만큼 개별 특성에 대해 더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문헌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 연구 중에서는 조사 연구, 실험 연구, 프로그램 개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조사 연구는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의 실태, 인식, 흥미도 등 다양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험 연구는 대부분 소수의 특수아동과 다수의 일반아동으로 구성된 대규모 집단 실험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실험 연구가 가능한 특수아동의 수가 적으며 다수의 특수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은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프로그램 또는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적 연구에서 조사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에 치우쳐있으므로 다방면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들의 음악활동 영역은 표현 영역, 그 외 영역, 감상 영역, 생활화 영역 순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표현 영역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여 편중된 비율을 나타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표현 영역뿐 아니라 감상 영역과 생활화 영역도 확장되어 모든 음악활동 영역이 고르게 분포될 필요가 있다.

표현 영역은 가창, 기악, 신체표현, 창작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가창은 음악활동 중 가장 기초적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특수아동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한 한편 창작은 언어 및 인지 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쉽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은 구성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작은 자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창작 영역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 외 영역은 모든 영역, 설문조사, 교과서 분석이 같은 구성비로 나타났으며 동향 분석이 제일 낮은 구성비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은 표현, 감상, 생활화 등 모든 음악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종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조사와 교과서 분석, 동향 분석은 특수 아동의 음악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

2. 제언

이상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 분석에 대한 결과에 비추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를 연도, 장애 유형, 연령, 연구 방법 그리고 음악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활동 영역까지 함께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 유형, 연령, 연구 방법, 음악활동 영역 모두 상당히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후속 연구자들은 이를 참고해 균형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치료 또는 특수교육과 음악교육 중 하나의 분야와 접목시킨 자료들을 한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은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에 관한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학술지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문의 빈도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음악수업 과정, 음악교육 적용 절차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관련 연구는 수가 적은 반면 국외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연구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William L. H·Sheila R. A·Moria K(2017). **최신평수교육**. 김진호 외 6인 역.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고시 제 2010-44호 [별책 1].
- 교육부(20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 교육부(2017).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603호.
- 교육부(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5367호.
- 권순우·김영익·정은·팽재숙(2017). **예비(특수)교사를 위한 알기 쉬운 통합교육의 실천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창지사.
- 김건희·김은혜(2015).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 관련 연구동향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21-50.
- 김동일·송승현·전병운·한경근(2016). **특수교육학개론: 장애·영재아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새롬(2014). 국내 청각장애인 대상 음악 적용 연구 동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성애(2010). “포스트모더니즘적 교육 및 인성학적 차원에서 본 한국 통합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 **유아특수교육연구**, 10(2), 23-49.
- 김지영 외 5명(2015).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5(3), 403-417.
- 김희규·김찬수·김현자·민경훈·손상희·송민경 외 2명(2011). **특수교육 음악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 민경훈·김신영·김용희·방금주·승윤희·양종모 외 6명(2017).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박소연(2012). “특수교육 음악치료 연구의 국내 동향 분석”, **특수교육연구**, 19(1), 93-115.

변미정(2014). 음악치료 관련 연구 경향 분석.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2호.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타법개정 「장애인복지법」 (2014).

손영화(2012). “통합교육 문제점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2), 91-113.

송미화(2012). 특수아동 관련 음악치료 연구의 경향 분석(1999-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승윤희(2013). “장애학생의 교육적 통합을 위한 통합 학급에서의 보편적 음악 학습 설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156-172.

승윤희(2014). “장애학생의 교육적 통합을 위한 통합학급의 음악 수업 연구”, **예술교육연구**, 12(3), 69-86.

신우영(2005). 1982-2004년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 경향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이순자(2016).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과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9(2), 75-127.

이진영(2012). 지적장애 대상 관련 국내 음악치료 학위논문 경향분석(1999-2012). 한세대학교 대학원.

임경옥·박경화·조현정(2017).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장혜성·장혜원·황은영·김은영(2007). **장애아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정대영(2017). **특수교육학**. 서울: 창지사.

최은식·권덕원·문경숙·석문주·승윤희·정재은 외 4명(2014). **음악교육 연구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최용선(2014). “조기 아동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지**, 600-602.

최지혜(201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대상자의 음악치료 연구경향 분석.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Music Education for domestic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2008-2017

Han, Jin lee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trend in research by analyzing 72 researches related to music education for domestic students with special needs published from 2008 till 2017. Research trends were categorized into year distribution, type of disability, age distribution, research methods and music activity field.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as the result of analysis according to years, there was no steady increase or decrease but in 2015, it appeared to be the most actively researched followed by 2010, 2012, 2013 and 2016 with same components.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disability type, research was mostly done on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then followed by intellectual disability, developmental delay and inclusion.

Third, according to the age distribution, research was mostly done on

children (elementary school), then adolescents (secondary school) and children (pre-school).

Fourth, according to the study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as the most popular, then followed by qualitative and literature research methods. In quantitative researches, survey research method showed the highest proportion.

Fifth, according to the music activity area, researches were mostly done on expression area, then appreciation and everyday life music area. In the expression area, singing area showed high proportion while in the other areas, survey and textbook analysis showed same proportion.

The number of researches done on special-aid education with music therapy was high while special-aid education with music education itself was relatively not popular. Even among those researches related to music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showed highly sided interests in single disability type, age group, research method and music activity area. Future researchers should responsibly carry out more balanced researches, therefore, and even greater number of researches should be examined on music education in special-aid education sector.

부 록

강래형·홍성규(2017), “중·고등학교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실용음악교육 실태조사 및 필요성”, **문화와 융합**, 39(6), 963-982.

강민채(2015), “자폐아동을 위한 음악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발달장애연구**, 19(4), 71-90.

강옥화·조대현(2016),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음악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독일 바이에른 주 음악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4(4), 171-193.

강은정·강이철(2015), “자기생성 배경음악(SG-BGM)을 활용한 지적장애학생의 과제집중력 및 과제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31(3), 603-630.

고정현·이한얼(2015),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수업이 통합학급 지적장애학생의 수업참여도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7(1), 113-132.

김건희·김은혜(2015),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 관련 연구동향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21-50.

김선희·이해균(2013), “시각장애학교 합주부 학생의 합주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 **시각장애연구**, 29(3), 1-26.

김수려·정은희(2013),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지적장애연구**, 15(2), 151-176.

김영한·김재현·권수정·이진옥·김다래·박정민(2017),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2), 147-168.

김용희(2013), “경도의 지적장애학생을 포함하는 통합음악수업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42(4), 27-52.

- 김유리·노진아(2011), “오르프술베르크를 적용한 음악활동이 통합된 발달지체 유아의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연구**, 6(1), 163-184.
- 김정아·김영일(2009),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시각장애학생의 음정 및 리듬 변별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교과교육연구**, 30(1), 85-104.
- 김형원(2015), “2011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음악과의 활동 이해영역 수행수준 실태 분석”, **지적장애연구**, 17(2), 109-135.
- 김혜영·김정애·손지영·김경하·오숙현(2013), “놀이동요 활동이 통합학급 유아의 사회성 및 음악적 흥미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53-82.
- 김홍대·이해균(2014), “시각장애학교 합주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시각장애연구**, 30(3), 46-63.
- 김희규(2010), “통합학급 장애학생의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한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수정 방안”, **지성과 창조**, 13, 205-239.
- 나희정·정은희(2011),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운영과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173-206.
- 남미정·정광조(2008), “그린음악과 자연음악이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적 자립능력 및 정서지능과 그 어머니의 상태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4(1), 27-49.
- 문지영(2010), “마음이론에 근거한 음악극이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자기인식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6(2), 197-222.
- 문혜리·임경원(2016), “대중음악을 활용한 음악수업에서 얻게 된 지체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실천적 지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3), 135-162.
- 민경훈(2015), “특수교육에서 오르프 음악지도방법의 수용적 가치”, **융합예술치료교육**, 1(1), 15-32.

- 민경훈(2016), “특수교육에서 원초 음악(Elementare_Musik)의 의미와 적용”, **융합예술치료교육**, 2(1), 1-16.
- 박남현·문현미(2012), “노래 삽입 동화활동이 초등 저학년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419-441.
- 박부경(2017), “비시각장애 교사의 시각장애 학생 피아노 교수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음악교수법연구**, 18(2), 51-82.
- 박아름·김진호(2010), “오르프 슐베르크를 활용한 음악교육 활동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과제수행 및 주의집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232-253.
- 박정숙·이병인(2010), “음악적 동화활동이 발달지체유아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5(2), 41-57.
- 박정은·박원희(2012), “특수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제재곡 및 학습내용 분석”, **국악교육연구**, 6(2), 41-74.
- 박찬희·이명순·박현(2013), “음악활동이 청각장애 아동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사례 연구”, **발달장애연구**, 17(4), 107-121.
- 박한나·이해균(2013),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감상 교육 실태와 선호도 연구”, **시각장애연구**, 29(4), 1-26.
- 박혜향(2016), “신체표현활동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이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음악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음악교육연구**, 1(2), 1-21.
- 승윤희(2013), “장애학생의 교육적 통합을 위한 통합 학급에서의 보편적 음악 학습 설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155-172.
- 승윤희(2014), “장애학생의 교육적 통합을 위한 통합학급의 음악 수업 연구”, **예술교육연구**, 12(3), 69-86.
- 신연서(2017), “시각장애학생의 음악학습동기 연구 인지적 환경적 변인의 인과관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3), 103-124.

- 신연서·김건희·이해균(2016),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에 대한 기악교사의 관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4), 597-615.
- 신연서·오지향(2009), “시각장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음악적성 연구”, **시각장애연구**, 25(4), 165-181.
- 신연서·이해균(2016),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경험과 음악흥미도 관계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2), 95-121.
- 신연서·이해균·김건희(2016),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의 의미”, **시각장애연구**, 32(2), 1-25.
- 신연서·차향미·이해균(2011), “시각장애 중학생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정서지능 간의 관계 분석”, **시각장애연구**, 27(4), 1-20.
- 양경옥·김정연·김시원(2015), “악기를 활용한 음악활동이 중도중복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및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3(2), 79-98.
- 오숙현(2012), “통합적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및 일반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509-531.
- 오숙현·최혜승·서해경(2015), “또래를 매개로 한 음악활동이 발달지체유아의 활동참여행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2), 53-75.
- 원종례·주용수(2008), “장애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 중재 연구 동향 분석 -2000-2007년까지의 국내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8(1), 93-115.
- 윤관기·윤성원·조대현(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학교 초등 음악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특수학교 초등음악교과서 개발 연구 내용”, **예술교육연구**, 15(1), 19-34.
- 윤성원·윤관기·조대현(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학교 초등 음악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학교 초

등 음악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시사”, **음악교수법연구**, 18(1), 167-208.

이경희·이해균(2010),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의 음악과 수업에 관한 인식”, **학교교육연구**, 6(1), 39-56.

이대식(2015),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음악적 중재 내용과 적용 효과”, **특수교육연구**, 14(1), 363-390.

이드보라·남선화·정미라(2016), “청각장애초등학생을 위한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0(4), 21-39.

이승미·이미숙(2017), “특수학교 음악수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특수교육론집**, 22(1), 57-71.

이정숙·안순영(2010), “놀이 중심의 유리드믹스가 발달장애학생의 감각처리 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1), 1-23.

임세란(2013), “오르프 음악 활동이 통합교육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6(3), 21-37.

장혜성(2012), “장애전담교사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어린이집 발달지체유아의 음악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발달장애연구**, 16(4), 125-148.

장혜성·장혜원(2009), “방과 후 음악활동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2(1), 27-48.

장혜원(2011), “사회성을 촉진하는 음악활동이 통합어린이집 발달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3(4), 223-249.

장혜원(2012), “노래활동이 통합보육기관 발달지체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2(3), 185-206.

장혜원(2012), “음악활동이 통합 어린이집 발달지체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9(1), 241-266.

장혜원(2012),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사회적 관계를 유도하는 음악의

- 특성에 관한 탐구”, **특수교육연구**, 11(1), 189-214.
- 전영주·김성태(2008), “음악을 이용한 언어증재가 지적장애 아동의 상대어 개념 습득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연구**, 7(2), 139-159.
- 정동영(2010), “장애학생의 음악교육 목표와 방향 탐색”,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3(2), 1-18.
- 정은경·김성애(2010), “전래동요를 활용한 교육 방안이 지적장애 유아교육에 주는 의미”, **국악교육연구**, 4(2), 229-252.
- 정은경·김성애(2013), “발달지체 유아 음악교육을 위한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음악 활동 분석”, **시각장애연구**, 29(4), 77-100.
- 정지심·여광웅(2008),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에 따른 예능음악 교과서 분석 연구”, **발달장애학회지**, 12(1), 79-95.
- 조대현·윤성언·강옥화·윤관기(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학교 초등 음악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특수교육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68, 177-203.
- 조윤정·이해균(2014), “시각장애학교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341-361.
- 지경미(2015), “지적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향상을 위한 태블릿 PC 기반 음악 만들기 활동”,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2(1), 1-21.
- 최성규·작혜림(2016), “청각장애학생의 음악과 운영의 현실화를 위한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고뇌와 노력”,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7(1), 23-38.
- 최윤미·강영심(2016), “지적장애 특수학교 음악담당교사의 음악수업경험에 대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18(4), 67-87.
- 최은아(2014),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음악교육연구**, 43(2), 115-138.
- 최지현(2009),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음악 교육 연구”, **종합예술과 음악**

학회지, 3(1), 109-126.

한홍석(2011), “지적장애학생의 가창 학습활동 요인의 관점에서 본 기본교육과정 음악 교과서의 제재곡에 대한 음악 교사들의 인식 수준”, **특수교육연구**, 18(2), 229-257.

홍은숙·김의정(2012), “방과 후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4(4), 1-25.

황순영·이나리·이후희(2015), “따뜻한 특수학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음악교과 운영의 개선방향 탐색 정신지체 특수학교 중등부 실태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7(2), 137-163.

황현숙·전보성(2010), “정신지체 특수학교 음악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3(2), 51-76.